

보도자료	(주)인스웨이브시스템즈
2024년 09월 13일, 보도요청의 건	
보도자료 문의: 마케팅팀 이우진 파트장 / woo@inswave.com	

인스웨이브, 주식 90만주 무상 증여로 '기술 중심 경영' 체제 강화

- CTO에게 6.1% 지분 이전, 기술 혁신 주도 인재에 대한 보상 및 동기부여
- 장기 성장 전략 위한 결속력 강화 및 자발적 매도 제한으로 책임 경영 약속

AI·DX 전문기업 인스웨이브시스템즈(450520)의 최대 주주인 어세롱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90만 주(900,000주)를 기술임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어 대표 개인 보유 주식의 6.1%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인스웨이브시스템즈(이하 인스웨이브)의 공동 창업 멤버인 CTO 김욱래 전무가 증여받았다.

이번 주식 무상 증여는 김욱래 CTO의 지난 22년간의 공로를 인정하고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거래 예정일은 2024년 10월 14일이며, 증여 주식에 대해서는 1년간 매도를 금지하는 등의 보호예수 조치가 함께 시행된다.

김욱래 인스웨이브 CTO는 75년생으로 99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전산학 부전공)했다. 2002년 인스웨이브 공동 창업 이후 주요 경력으로는 △웹스퀘어 R&D 총괄(2009~2020년) △연구개발본부 본부장(2014~2021년) △CTO 부임(2021년~현재) 등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 W3C AC Member로 활동 중이며, 국내특허 19건, 미국특허 6건, 일본특허 2건을 주도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인스웨이브의 코스닥 상장 전후 AI 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 웹스퀘어 AI(WebSquare AI) 플랫폼 출시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융합 기술 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어세롱 인스웨이브 대표이사는 "김욱래 CTO는 병역특례 근무 후 첫 직장으로 인스웨이브시스템즈에 합류해 지난 22년간 회사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온 핵심 인재"라며 "이번 주식 무상 증여를 통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회사 성장에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욱래 CTO는 "회사의 성장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스웨이브가 AI 및 DX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스웨이브는 오는 9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고객사와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한 '2024 인스웨이브 솔루션스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전환의 물결을 선도하다'를 주제로 최신 웹 기술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솔루션과 비즈니스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기업 정보 요약)

인스웨이브시스템즈(450520, 상장일 23.09.25)는 2002년 창립 이후, 웹 표준 UI/UX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22년 차 AI 및 DX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900여 개의 고객사와 4,000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탄탄한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AI 코파일럿 기능을 지원하는 '웹스퀘어 AI(WebSquare AI)'를 출시하여 UI/UX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 기업에서 AX 기업으로 약진하고 있다.